

전남도립미술관, 모든 세대 함께 즐길 여름방학 특별전

어린이 전시 '기다려-색!' 소장품전 '김아영:다공성 계곡2'
9월 14일까지... 감상 중심 넘어 참여하고 체험하도록 구성

전남도립미술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전시 '기다려-색!'과 소장품전 '김아영: 다공성 계곡2'를 개최한다.

9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는 감상 중심의 전시를 넘어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유도하는 구성으로,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 속에서 예술을 다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다려-색!'은 색을 주제로 기획된 체험형 전시로, 감각과 표현,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다려-색!'은 색을 주제로 기획된 체험형 전시로, 감각과 표현,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통해 색으로 시간의 흐름을 관찰한다. 유지원 작가의 '틈새 불룩' 조형 교구, 이은선 작가의 색 선글라스 키트는 빛과 색의 혼합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한다. 정정하 작가의 작업은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기다려-색!' 전시는 작가와 공동 개발한 활동지, 교구, 발문 등을 바탕으로 상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어린이 대상 1일 2회 전시 해설(오전 11시, 오후 3시)과 특별 워크숍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뿐 아니라 전 세대가 예술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경험하도록 준비했다.

함께 진행되는 소장품전 '김아영: 다공성 계곡2'는 전남도립미술관의 대표 미디어아트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로, 김아영 작가의 '다공성 계곡2: 트릭스터 플랫폼'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바탕으로 '이주'와 '경계'의 문제를 탐구한 2채널 영상이다.

작가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내러티브를 통해 동시대 사회와 기술, 정체성과 타자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유도하며, 관람객은 이 전시를 통해 이주와 경계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무더운 여름, 작품 감상과 체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번 전시가 전 세대가 예술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미술관의 역할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 워크숍과 전시 해설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artmuseum.jeonnam.go.kr)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기자

고흥 꿈꾸는 예술터, '남다른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

그림책으로 엮는 강연, 활동으로 공감과 일상의 예술 감수성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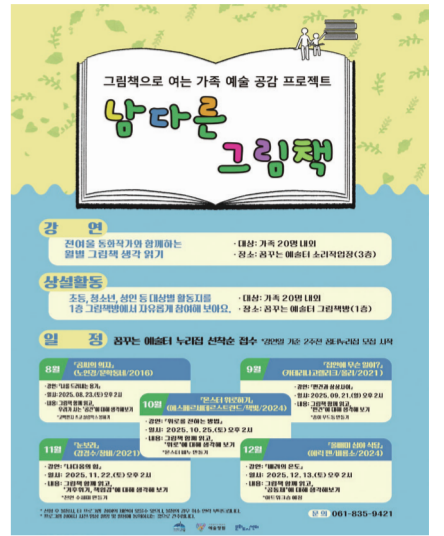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고흥군 문화도시센터(센터장 서성훈)는 오는 8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 기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남다른 그림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매개로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정서적 감수성, 창의력, 소통 능력과 공감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매월 1회 1권의 도서를 선정해 동화작가 전여울과 함께 강연을 진행하며,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층 그림 책방에는 매월 선정 도서와 연계한 연령별 활동지를 비치해, 누구나 자율적으로 독서문화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용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은 꿈꾸는 예술터 예술정원 3층 소리작업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8월 23일, 9월 21일, 10월 25일, 11월 22일, 12월 13일에 열린다.

서성훈 센터장은 "그림책은 세대를 연결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



는 힘이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가족 간 소통의 장이자,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서로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이나 주민은 꿈꾸는 예술터 문화예술교육팀 ☎ 061-835-9421 또는 공식 홈페이지(http://ghart.kr/)를 통해 강연일 2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바흐가 지휘한 '성 토마스 합창단' 광주 온다

800년 역사 독일 대표 소년합창단... 9월11일 광주예술의전당서 공연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지휘했던 독일 '성 토마스 합창단'이 광주에서 내한공연을 갖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우호도시 독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이 오는 9월 11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성 토마스 합창단은 2012년 광주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 독일 라이프치히시에 소속된 소년합창단으로, 1212년 설립해 8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독일의 대표 합창단이다.

'음악의 아버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1700년대 단장자 지휘자를 의미하는 토마스칸토르(Thomaskantor)로 재직하며 그의 마태수난곡·오라토리오·칸타타 대부분을 초연한 곳으로 유명하다.

합창단의 주요 레퍼토리는 바흐뿐만 아니라 그레고리오 성가, 현대음악에 이르기

까지 전 시대의 합창곡을 아우른다. 매주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예배 음악을 담당하며 매년 2500명 이상의 청중을 불러모은다.

20세기 들어 활발한 해외공연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으며, 라이프치히의 문화대사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와 라이프치히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인권·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성 토마스 합창단의 사상 첫 광주공연은 양 도시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이번 공연은 2021년 성 토마스 합창단의 제18대 칸토르 안드레아스 라이즈의 취임 후 최초의 내한공연이다. 광주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부산콘서트홀, 부천아트센터, 통영국제음악당 등 국내 유명 공연장에서 한국 순회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연 티켓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이다.

조현호 국제교류담당관은 "독일을 대표하는 민주·평화·예술의 도시 라이프치히

의 성 토마스 합창단 광주 방문이 양 도시의 관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정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웹툰으로 엮은 행복의 순간, 어르신 기억예술 아카이브전 열려

순천 향동 어르신들의 삶을 웹툰으로 그린 전시회 개최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문화의 거리 내 서문안내소 전시장에서 '어르신 기억예술 아카이브 전시회: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날'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어르신 12명의 기억을 웹툰이라는 현대적 매체로 재구성한 신개념 지역문화 프로젝트로, 순천의 과거와 현재가 예술로 만나는 특별한 전시회다.

전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낯선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 웹툰 작가들에게는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창작 원천으로 접할 수 있게 기획됐다.

특히 향동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순천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전시하는 협업 방식으로 의미를 더한다.

참여 학생들은 어르신 각자의 인생에

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공간, 감정을 듣고 1인당 2작의 웹툰으로 표현했다. 가족과의 추억, 치열했던 삶, 사라진 풍경 등 다양한 주제가 웹툰으로 재해석되어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감성적인 예술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전시는 향동 지역의 생활문화와 공동체 기억을 디지털로 아카이빙하며, 세대 간 단절을 넘어선 예술적 소통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웹툰을 매개로 세대 간 소통하며, 각자의 기억이지만 지역 역사와 정서를 새롭게 해석해 기록하는 현대적 지역문화 계승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전시 종료 후 작품은 이야기 소재를 제공한 어르신들에게 기증될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보나나인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금이 있습니다

어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